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판매 허용



▲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shutterstock

한국 정부가 시내 면세점 외 모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같은 내용의 면세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면세품을 구입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의 물품도 온라인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면세점에서는 종전과 달리 주류까지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스마트 오퍼 방식으로 면세 주류를 구매하면 공항이나 항만 출국장과 입국장에서 인도장에서 이를 수령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면세 주류를 귀국할 때 인도받아 들고 입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 후 시간을 두고 국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은 시내 면세점에 직접 방문해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면세품 구매가 가능했는데 정부는 이를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여권 없이도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등 관세 납부 방식도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 “한국, 은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아시아 1위”

한국이 아시아에서 은퇴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에 있는 네티식스 투자관리사(Natixis Center for Investor Insight)가 코어데이터와 함께 재정적 요소, 의료 접근성, 의료 비용, 기후, 인구 행복도, 기대 수명 등 18개 항목으로 나누어 매년 조사하는 '은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22위, 싱가포르가 27위, 중국이 39위를 기록했다.

은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 1위~10위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공화국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1년 전 17위에서 한 계단 내려온 18위에 올랐다. 소득 평등 부문과 정부 채무 및 세금 압박 부문에서 점수를 잃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물가는 치솟고 노령 인구가 늘면서 연금과 노령 혜택 문제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이 그전

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조사팀은 지적했다. 노령인구 증가 면에서 미국의 경우 1950년에는 노령 연금 수급 개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였으나 2020년에는 28.4%가 되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난 반면 이 연금의 재원인 납입금을 낼 노령 이전 인구는 줄어든 것이다. 2050년에 되면 미국의 노령 인구 비중은 40.4%가 된다.

사진=shutterstock

## “한국 출산율 끌지는 ‘hagwons’ 때문”

과도한 학원비 등 육아 부담이 한국의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전날 '육아 부담이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했는데,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첫 번째 이유로 과도한 학원비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학원을 한국말 그대로 'hagwons' 이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지출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들어간다"면서 "한국



에서는 한 가정이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마치게 하려면 6년치 평균 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집값 급등도 출산율을 저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한국 여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

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복귀가 힘든 점 ●성별 임금 격차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등의 요인도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사진=shutterstock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